

시더리츠 선생님의 정년 퇴임을 기리며

강진호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내가 마크 시더리츠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2007년 연말에 있었던 철학사상연구소 콜로키움 에서였다. 당시 콜로키움에서는 발표자로 초청된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홍창성 교수님이 물리주의와 심신문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홍 교수님의 발표가 끝난 후, 호리호리한 체격에 머리를 짧게 깎은 외국인 학자 한 분이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날카롭게 찌르는 질문들을 제기하였다. 그 외국인 학자가 바로 시더리츠 선생님이었다.

당시 나는 시더리츠 선생님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전공한 분인지 궁금해 했다. 질문들의 깊이와 정교함을 볼 때 분석철학 전통의 심리철학이나 형이상학을 전공한 분일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했다. 콜로키움이 끝나고 난 후에야 나는 조은수 선생님을 통해 시더리츠 선생님이 인도 불교철학을 전공하고 계시다는 것,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학자라는 것, 그리고 인도 불교철학과 분석철학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불교철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현대 심리철학과 형이상학에 관해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와 시더리츠 선생님과 첫 만남은 이렇게 놀라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8년 8월, 시더리츠 선생님이 우리 철학과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 때 내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바로 비슷한 시기에, 한국 철학계에 전례 없는 행사로 기록될 제22차 세계철학대회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나는 대회 준비 및 대회 후속 마무리 일 때문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밀려들어오는 일들을 꾸역꾸역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넘기다 보니 계절은 어느덧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었다. 그동안 인문대 6동 건물을 오고 가다 시더리츠 선생님을 몇 번 마주쳤다. 나는 짧게 인사를 건넸고, 시더리츠 선생님도 짧은 인사로 답했다.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시더리츠 선생님과 마주칠 때마다 그는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나는 철학을 공부하는 이에게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 시간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시더리츠 선생님과 본격적인 교류는 2009년 1학기부터 시작되었다. 나와 같이 공부하는 대학원생들 몇몇이 시더리츠 선생님의 세미나를 듣기 시작했다. 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시더리츠 선생님이 세미나에서 어떤 철학적 주제들을 다루는지 알게 되었다. 실재론과 반실재론, 자연주의와 비자연주의,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 자아, 의식, 지향성, 자유의지, 도덕적 책임감, 그리고 의미의 모호성(vagueness)에 이르기까지, 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이었다. 인문대 6동 건물을 오고 가다 시더리츠 선생님과 마주칠 때, 나는 전과 달리 이제 조금씩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시더리츠 선생님도 나에게 말을 건네면서 화답했다. 만날 때마다 우리들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고 급기야는 본격적인 철학적 토론으로 발전되었다. 시더리츠 선생님이 과학적 자연주의와 환원주의에 공감하면서 자아와 의식의 독자적 실재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있는 반면, 나는 과학적 자연주의와 환원주의에 반대하면서 자아와 의식에 대해 어떤 종류의 독자적 실재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러나 시더리츠 선생님은 자신의 철학적 입장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고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 서도 그 장점들을 기꺼이 인정하는 열린 자세를 보였다. 그래서 그와의 철학적 토론은 논쟁적이지만 생산적이었고, 격렬했지만 즐거웠다.

시더리츠 선생님과 철학적 토론은 2009년 2학기 때 잠시 중단되었다. 나는 당시 국내에서 안식하기를 보내면서 집에 틀어박혀 한편으로는 밀린 논문들을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혹사한 몸과 마음을 추스렸다. 그러나 안식학기가 끝난 후 2010년 1학기에 다시 과에 복귀하면서 나는 시더리츠 선생님과 철학적 토론을 재개하였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목요일에 점심을 같이 하면서 철

학적 토론을 하기로 했다. 예상과 달리 “특별한 일”들은 곧잘 생겼다. 그래도 우리는 꼬박꼬박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만나 토론을 이어갈 수 있었다.

시더리츠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내게 있어 그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해보라고 한다면, “담백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고기를 드시지 않는 채식주의자 시더리츠 선생님은 그 외면적 모습에 있어서도 군살과 기름기가 없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은유적 의미에서 “기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일체의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다. 수사와 과장, 허세와 가식은 도대체 그에게서 찾아 볼 수 없다. 무릇 철학자는 자신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탐구하는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 자부심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자부심으로 인해 자칫 자신의 학문적 작업에 필요 이상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허위의식에 빠질 위험을 늘 갖고 있다. 이러한 허위의식에 빠진 철학자는 그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러움이 사라지고 반드시 어떤 부자연스러움을 노출하기 마련이다. 시더리츠 선생님은 단 한번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늘 자연스럽고 담백했다. 그래서 나는 그와의 토론이 편안했다. 아니, 평화로웠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2010년이 지났다. 세월은 화살과 같다. 2011년이 시작되었나 싶더니 언제인지도 모르게 올해도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다. 올해가 지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시더리츠 선생님과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동료 교수로 같이 지낼 수 없다. 어느덧 그는 65세가 되었고 정년 퇴임을 앞두고 되었다. 진부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던가. 최근 들어 더욱 왕성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더리츠 선생님이 이제 강의와 학생 지도의 부담에서도 벗어났으니 지금까지의 연구 업적보다 더 뛰어난 업적들을 쏟아내리라 확신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와 더 이상 동료 교수로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어 못내 안타까울 뿐이다.

첫 만남에서 놀라움으로 시작된 시더리츠 선생님과 인연은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일단락 맺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

든 시더리츠 선생님과과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불어 우리들의 철학적 토론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소중한 기억들은 추억으로 남는 법. 지난 3년 반동안 시더리츠 선생님과 함께 한 여러 기억들 또한 나에게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시더리츠 선생님의 정년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